

다산포럼

혼자 갈 수 없는 길



고 세 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이미 태어났다면 가장 신속히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BC 6세기에 활동했던 그리스 서정시인이며 도덕가인 테오그니스의 말이다. 소포클레스(‘폴로누스의 오이디푸스’)가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 한 세기도 훨씬 더 지난 후의 일이니, 과연 테오그니스아랍로 염세주의 철학자의 표시로 볼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온갖 운명적 관계들에 치이다가 비극적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했던 오이디푸스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관계의 그물들 속에 던져져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대체로 상처는 깊고 오래가는 것이어서 평화란 아득하거나 짧고 피상적으로 느껴지기 일쑤다. 그리하여 결코 최후 경전이라는 수파니파라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서늘한 말을 그리도 장엄하고도 반복적으로 들려주는가 보다. 어떤 소설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먼저 친숙해진 이 말은, 특히 관계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외로움은 고혹적이기도 하지만, 외로움 영혼을 고집하면 정말 외로워진다. 문제는 인간은 상처받기 쉬운 만큼 홀로는 불안정한 존재라는 데 있다. 그리고 쉽게 요동하는 내 일상의 감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의 이성·결의·양심은, 특히 구체적인 이해관계 앞에서, 얼마나 겁 많고 취약하던가. 최근 한 유명작가는 자신의 기억조차 믿을 수 없다 했지만, 그 맥락과 무관하게, 그러한 진술은 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가슴에 절실히 닿는다. 우리는 과거 자신이 했던 언행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세월을 사는 존재인 것이다. 지난 세월 나의 수많은 다짐과 결연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후회와 수치심을 불러왔던가를 떠올리는 심사가 더 고약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령 역사는 권력자가 스스로 신이 되려 할 때, 그(녀)의 고독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를 거듭해서 보여 준다. 더욱이 이 모든 것 이전에, 혼자 살려 해도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외로움에 물린 채 하루하루의 생존조차 힘겨운 사람들이 늘고 있다. 언젠가 ‘장애는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일 뿐’이라던 북유럽 어느 정치인

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던 때가 있었다. 내가 아는 어떤 교회는 언젠가 울지도 모르는 장애인을 위해 작은 2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많이 들어설수록 그는 자신의 장애를 점차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과 더불어 사람들의 의식 또한 바뀔 것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 전반에 적용된다. 이들의 물리적 생존을 위한 안전망이 자연스럽게 정착될수록 그들은 결핍과 따가운 시선으로 주눅 든 낙오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편입된다. 그들을 위한 장치가 개인 차원의 단순적인 시혜-관계의 인격적 비대칭성을 전제하는—를 넘어서, 가능하면 공적이고 보편적으로 제도화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일 것이다. 어찌 보면 “내 힘으로 컸다”는 말처럼 황당한 말은 없다. 내가 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이들을 그리 미담지 못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 관찰에 따르면, 그런 이들은 통상 지적으로나 부(富)에서나 이른바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처럼 보상체계가 지식 위주로 왜곡돼 있고, 돈이 우상이 된 사회에서 ‘당당히’ 승자가 된 이들이든, “소유한다”(own)는 단어는 ‘빚진다’(owe)는 말과 중세적 어원이 같다. 요컨대 소유한 자는 빚진 자이며, 지식이건 부건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더 많이 빚지고 있다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지식이란 것도 우연히 물려받은 두뇌 혹은 인류가 이미 축적해 놓은 지식 위에서 가능했고, 나의 재력도 상속받거나 그 축적 과정에 수많은 이들의 협력이 불가피하게 개입되는, 사회적 산물일 뿐이다. 돌아보면 우리는, 성찰 없는 지식인과 준비안 된 부자가 이 사회에—왕왕 그 개인에게조차—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하는지 정말 지겹도록 반복해서 경험해 왔다. 무릇 힘 있는 자는 의지가 없고, 의지가 있는 자는 힘이 없다. 소통이 가장 절실한 자는 약자인데 소통의 칼자루는 언제나 강자의 몫이다.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엉터리 지식인과 부자가 수준 등 수많은 통제가 보여주듯, 한국인은 가장 외로운 현대인일지 모른다. 기어코 차이를 만들고 그것을 과장하며 조급이라도 우월감을 느껴야 비로소 직성이 제도적으로 제어돼야 한다. 혼자 갈 수 있다는 말은 픽션이고, 관계는 단절이 아니라 복원됨으로써 비극을 완화한다.

社 說

시·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강구해야

광주·전남 시·도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이 부진하다. 그럼에도 제재 수단은 겨우 성과급 차등 지급뿐이다. 출연기관에는 막대한 형세가 투입되는 만큼 고강한 쇄신책 도입이 절실하다. 광주시의 공공기관 경영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산하 12개 출연기관 평가 결과는 지난해보다 크게 나빠졌다. 신용보증재단과 광주발전연구원을 제외한 10곳이 보통 이상인 B등급을 받았으며 A등급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는 디자인센터 등 8곳이 A등급이었으나 올해는 빛고을복지재단 등 4곳에 불과했다. A등급은 80점 이상, B등급은 70점 이상, C등급은 60점 이상이다. 4개 공기업만 놓고 보면 도시공사는 지난해와 같은 가등급을 받았고, 환경공단은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한 단계 올랐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와 같은 나등급을 유지했지만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졌다. 전남도 출연기관 역시 경영 실적과

경영 컨설팅, CEO 성과계약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11곳 가운데 최우수에 해당하는 가등급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유일했다. 전남테크노파크 등 7개 기관은 나등급으로 분류됐다. 전남문예재단·전남발전연구원·강진의료원 등 3곳은 다등급이었다. 출연기관의 부실한 경영 실태는 느슨한 제재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평가 후 등급에 따라 10~200% 차이를 뒤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획기적인 자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자발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나 예산 지원 중단 등으로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직하다. 자구책을 찾지 못한 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출연기관을 구태의연한 방편으로 대처해서는 백년 하청이다. 실제로 약발이 미치는 경영 효율화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학교 주변 성범죄자 안전 대책 시급하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대부분의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초·중·고 5곳 중 무려 4곳에 해당된다. 하지만 학교 안전망은이 여전히 허술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중·고 316개교 가운데 81.3%에 해당하는 257개 학교의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6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다수 거주하고 있는 학교도 전체의 27.4%인 77곳이나 됐다. 문제는 이 77개 학교 중 66곳이 성범죄에 취약한 초·중학생들의 통학로라는 것이다. 더욱이 26개 학교 주변에는 성범죄자가 10명 이상 살고 있다고 하니 어찌 불안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

낼 수 있겠는가 싶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 안전망 구축은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범죄자가 10명 이상 거주하는 광주 지역 학교 26곳 가운데 얼굴 식별이 가능한 100만 화소 폐쇄회로 TV는 30.8%인 8곳에만 설치돼 있다. 전남은 18%에 그쳤다. 관리 부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 사례다.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안전망 구축은 사회적·국가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이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안전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큰 사건이 터지면 대책을 내놓고, 관심이 사라지면 흐지부지해 버리는 ‘냄비 행진’은 지양돼야 한다. 방과 후 취약 시간대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부모와 교사들도 ‘성범죄자 알람이’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정춘 특·특



이 새 이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4학년

기나긴 고등학생 생활의 종지부, 수능을 끝으로 20대의 생활이 시작이 된다. 설렘을 안고 대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생했던 지난날들과 앞으로 자신에게 다칠 수많은 일들에 대한 관심이 온몸을 헤집고 다닐 것이다. 대학생살이란 무엇일까? 우선 대학에 들어오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수강신청부터 졸업요건까지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처음에는 고등학생의 때가 묻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성인으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책임’이 뒤따른다. 이것을 대학에

내가 원하는 만점 대학생살

서 배우고 우리는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고 말한다. 대학생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대학생살의 첫 번째 선택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다. 동아리에는 나와는 다른 학과 친구들이 많이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속한 학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친구들까지 만날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동아리에 대한 책임감 또한 커지는데 후배가 동아리에 들어오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동아리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대학동아리는 4년 내내 이어지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보는 선배 혹은 후배는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볼 수 있고, 이 연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끈끈해 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선택은 대·내외 활동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주는 사회적 혜택은 많다. 이것 중 하나가 대외활동인데, 대외활동은 우리 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도 만날 수 있다. 나중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대외활동이라면 더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사를 꾸꾸는 학

생이라면 어느 회사의 기자단에 신청하면 된다. 기자단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다면 기업에 입사할 때 혜택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대·내외 활동은 학생회 활동, 대학 홍보사 활동 등이 있다. 학생회 활동은 학교에 관심이 많고 능동적으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대학 홍보대사는 학교의 얼굴로서 학교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생활과 함께 학교 홍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 대내활동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학생들로서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학교에 봉사하는데 쓰이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택은 로맨틱한 사랑이다. 대학에 들어와서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중요하다. 대학교에는 매력적인 남자, 여자가 많이 있는데, 반드시 연애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를 절실히 좋아해 본다는 경험은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대학시절을 뒤돌아 봤을 때, 그 당시 좋아했던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대학시절이 눈앞에서 그려지기 때문이

다. 그리고 누군가를 절실히 좋아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학생살에 대한 후회는 없을 것이다. 물론 짝사랑도 그럴할 것이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선택적인 상황이다.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실에 대한 벽에 pengge를 삼지 말고 절실히 좋아하는 선택을 했으면 한다. 대학생살의 정답은 없다. 학과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아웃사이더형 대학생살뿐만 아니라 동아리나 대내외활동을 하는 학생도 그만의 대학생살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선택을 부모님이나 자신 이외의 사람에 미루고 있다면,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멋진 대학생살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스스로 여러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학생살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졸업 후 당신께 “지나온 대학생살을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온다면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100점 만점의 대학생살이었다”고 주저 없이 답해야 하지 않을까!

기 고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



이 기 한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오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죽녹원 일원에서 열리는 2015담당세계대나무박람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대나무박람회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거닐고 대나무를 활용한 수공예 체험도 하고, 대나무를 재료로 한 다양한남도 음식도 맛보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 거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 CNN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50곳 중 한 곳으로 소개할 만큼 한국 대표 관광명소인 죽녹원에서 열리기에 더욱더 그렇다.

박람회 주제인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에 담긴 또 하나의 화두에 관해 얘기하

고 싶다.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가 담양군의 미래라면 또 하나의 화두는 바로 전라남도의 미래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41%가 월 1회 이상 숲을 찾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는 숲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전남도민은 더욱더 그렇다. 전남에는 화순 만연산 오방길, 장흥 편백숲, 장성 편백숲 등 삼림육종 31개소, 치유의 숲 8개소, 휴양림 14개소 등, 특화된 숲만 무려 53곳에 이른다. 수치로만 보면 각 시·군마다 2곳 이상의 아름다운 숲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발걸음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숲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기에 그 숲의 가치를 더욱더 알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전남에서는 아름다운 숲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숲 속의 전남’ 만들기 10계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부터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무어의 법칙(마이크로 칩 기술의 발전 속도에 관한 것으로, 마이크로 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8개월마다 2배

씩 증가한다는 법칙)에 휩쓸려 살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은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사용을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있다. 단적인 예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 중독이 신경정신과 병명으로 자리 잡을 만큼 스마트폰 폰이 주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디지털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DMC 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 한국인의 디지털 스트레스 지수는 52.6점(100점 만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숲은 바로 이러한 디지털 스트레스라는 병을 치료하는 자연치유의 장이다. 2015담당세계대나무박람회를 예로 들면, 죽녹원을 가보면 대숲을 걸을 때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가슴에 느껴지는 청량함을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피톤치드 때문이다. 피톤치드는 대나무 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무에서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것으로 공기를 정화하고, 스트레스 해소, 심폐기능 강화, 살균작용의 효과가 있으며 아토피를 유발하는 집먼지진드기의 번식을 억제하는

자연 항균 물질이다. 또한, 대나무는 생태적 가치와 함께 아미노산, 지방산, 무기성분을 다량 함유하여 중풍, 심장질환, 해열, 이뇨 등에 특효인 약리적 가치까지 가지고 있어 관광뿐 아니라 산업적 가치가 크다. 전남이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숲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전남은 치유의 적도 할 수 있는 공기 중 오존 함유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만큼 관광·산업적 가치도 높은 지역이다. 특히, 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중국과 일본을 생각하면 그 가치는 무한대에 가깝다. 세계의 허파가 브라질 아마존이라던 동북아시아의 허파는 바로 전남이라고 할 것이다. 2015담당세계대나무박람회장을 찾아 박람회의 화두인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를 직접 체험하면 ‘숲에서 찾은 전남의 미래’는 더욱 확고히 여러분의 가슴에 선명하게 각인될 것이다. 힐링의 삶을 꿈꾼다면 이번 기회에 대나무박람회를 비롯해 아름다운 전남의 모습을 둘러보길 권한다. 여러분이 꿈꾸는 힐링의 삶, 바로 전라남도에도 있다.

無 等 鼓

#어떤 촌부(村夫)가 어린 아들과 함께 여름날 저녁에 문지방 위에 발을 걸쳐 놓고 잠이 들었다. 이때 뱀 한 마리가 촌부의 잠자리(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홑바지) 속에 들어가 꼬리를 들고는 나오지 않았다. 촌부가 잠에서 깨어나 생각해 보니 화를 피하기가 어려울 듯해 자는 아이를 흔들어 깨우고 물어보았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이는 “웁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 계시요” 하고는 즉시 우물가로 뛰어갔다. 이어 아이는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오더니 소리를 내게 했다. 뱀이 개구리 소리를 들어서 꼬리를 풀어 옷 밖으로 나오니 결국 해를 면할 수 있게 됐다. #매월당 김시습이 세상을 피해 중이 되었다. 일찍이 서울서 노닐다가 재상 권람의 집 앞에 이르게 되자 ‘시를 배우는 중’이라며 밥기를 청했다. 권람은 그를 서재에서 기다리게 해 놓고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다. 김시습이 벽에 걸려 있는 먹으로 시 한 수를 써 놓고 사라져 버렸다. 권람이 나와서 이를 보고는 “아깝도다. 매월당이 왔었구나” 하고는 사람을

시켜 뒤쫓도록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신익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지난 2005년 발표한 ‘새롭게 발굴된 어우야담(於于野譚) 40화’ 중 일부 내용이다. ‘어우야담’은 조선 중기 문신이자 문장가인 고충 출신 어우당 유몽인(1559~16230) 선생이 편찬한 최초의 설화 야담집이다. 17세기 동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설화문학의 백미’(白眉)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충군이 ‘어우야담 웹툰’을 제작, 14일부터 군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웹툰은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만화를 의미하는 ‘카툰’(cartoon)이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로, 온라인에서 보여 주기 위해 그린 만화를 의미한다. 현재 ‘귀곡옹의 미남사위’ 등 5개의 이야기가 올려져 있으며 연말까지 20화를 제작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3월에 지역 전체의 각종 설화를 한데 모아 13권 분량의 설화문학 조사 연구집을 펴낸 바 있다. 고충군이 의욕적으로 제작하는 ‘어우야담 웹툰’이 요즘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됐으면 좋겠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통권번호 광주가11월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대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자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사 업 국 2200-515 문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량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